

일본의 정계재편과 ‘신정치문화’

장원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본 연구는 1993년 이른바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급격한 재편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일본 정치에 관한 분석이다. 정계재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엘리트주의적 설명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일본의 일반 대중과 정치 엘리트의 정치문화적 변화가 일본 정계재편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주장하는 대중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정치문화’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신정치문화적 시각의 요약은 물론, 필자 나름대로의 논리에 입각하여 새롭게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선거 데이터, 인구조사, 지방재정데이터와 같은 통계자료, 그리고 잉글하트의 세계가치관 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일본에서도 과연 신정치문화의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신정치문화의 발달이 93년 중의원선거가 발달이 된 일본 정계재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신정치문화적 시각이 예측하고 있는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높은 집단-젊은층, 고학력층, 고소득층,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함을 통해 신정치문화의 발달이 현재 일본의 정계재편에 미치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다.

1. 서론

1993년의 일본 중의원 선거는 전후 일본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1955년 형성된 이른바 “55년체제”하에서 영구적인 여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민당은 38년만에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다음해 재집권을 위하여 자민당이 선택한 길은 38년 동안 가장 큰 이념적 라이벌이었던 사회당과 손을 잡은 것이었다. 그 후의 일본 정계는 합당과 신당 창당이 반복되는 혼미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변화에 대한 주된 설명방법은 엘리트주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강조하는 정치엘리트는 다를 수 있겠지만¹⁾, 엘리트주의적 접근은 정책결정과정과 정치변화에서 정치엘리트가 지배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1) 국가 관료론을 강조하는 학자로는 실버만(Silberman, 1974), 존슨(Johnson, 1982), 츠지(辻, 1969)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치가 특히 자민당 정치가를 강조하는 학자로는 램자이어와 로젠블루트(Ramseyer and Rosenbluth, 1993)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오끼(Aoki, 1988)는 자민당 정치가와 관료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무엘스(Samuels, 1987)나 펨펠과 츠네카와(Pempel and Tsunegkawa, 1979) 등은 경제 엘리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접근은 1993년 이후의 일본정치의 격변에 대하여 정치엘리트의 역할-공정적이건 부정적이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먼저 정계재편의 원인으로, 1993년 카네마루(金丸)의 “사가와큐빙(佐川急便)” 스캔달과 미야자와(宮澤)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들고 있다. 이것이 결국 자민당 전 간사장 오자와(小澤) 및 하타(羽田)파벌의 탈당을 초래했고, 이러한 자민당의 분열은 그 후 여러 신당의 창당으로 이어졌으며,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신당들의 성공과 단합은 자민당을 1955년 이래 최초로 야당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시각은 정계재편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계재편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정치적 변화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스캔달이나 자민당 의원의 탈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76년의 “록히드” 스캔달이나 88년의 “리쿠르트” 스캔달 모두 “사가와큐빙” 스캔달에 못지 않게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또한 “록히드” 스캔달 이후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코오노(河野) 등의 신진 자민당의원들이 탈당하여 “신자유 클럽”이라는 신당을 만든 것이 1976년의 일이었다. 하지만, 70년대나 80년대의 스캔달은 자민당을 여당에서 끌어내리는 결과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신자유 클럽은 그 후 정계재편은 커녕 자민당에 다시 통합되고 말았던 것이다. 즉, 1993년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대하여 엘리트주의적 해석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어쩌서 70, 80년대의 유사한 사건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가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결국 엘리트주의적 해석은 최근 일본의 정계재편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접근에 반해, 일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중주의적 접근도²⁾ 1993년 이후의 일본의 정치변화를 설명하는 유력한 접근방법으로 대두되어 있다. 카바시마(蒲島, 1994)는 1993년 선거전의 일본 시민의 정치에 대한 회의, 그에 따른 신당에의 투표가 자민당으로 하여금 38년만에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주의적 접근 또한 변화의 근본적 원인을 설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70년대의 정치부패에 대하여는 관대했던 일본 국민이 왜 90년대에 들어서는 자민당을 38년 여당의 위치에서 밀어낼만큼 회의적이었나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3년 이후의 일본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대하여 일본 일반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중주의적 접근을 택하되, 종래의 대중주의적 설명이 제시하지 못했던

2) 대중주의 접근의 예로는, 정책결정에서의 일반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애프터와 사와(Apter and Sawa, 1994), 파(Pharr, 1990), 업햄(Upham, 1987) 등과 1950년대의 일본시민의 투표행위가 전후 일본의 가장 중요한 변혁의 시기의 정치체계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리드(Reed, 1988)를 들 수 있다.

정계재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본시민과 정치엘리트의 신정치문화를 제시함으로써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정치변화의 과정에서 정치엘리트와 일반 시민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계재편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신정치문화' 시각

1970년대 이후 서구 각국에서는 종전의 '좌-우(Left-Right)'의 이념적 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3)의 『시민문화(Civic Culture)』 이후로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정치문화 연구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왔다.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0)의 '탈물질주의론(post-materialism)', 오페(Offe 1985, 1987)의 자율·정체감에 기초한 '신정치론(new politics)', 달톤과 쿠에홀러(Dalton and Kuechler, 1990)의 '신사회·정치운동론(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 무라카미(Murakami, 1982)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신중간대중정치론(new middle mass politics)', 클락과 퍼거슨(Clark and Ferguson, 1983)의 '신재정적 대중주의(New Fiscal Populism)'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려는 시도로서 클락과 잉글하트(Clark and Inglehart, 1990)는 '신정치문화(new political culture)'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클락과 잉글하트는 신정치문화의 특징으로 (1)사회 계급의 정치적 중요성 감소, (2)사회적 이슈의 중요성, (3)범시민적 정치참가, (4)국가주도형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신정치문화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는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신정치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적 변화를 중시하는 잉글하트와 사회 위계구조의 해체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클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신정치문화'의ダイナ믹을 분석하는데 있어 전혀 다른 자료를 사용한다. 잉글하트는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라는 개인 차원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 반해 클락은 센서스, 도시의 재정지수 등의 총계 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잉글하트는 미시적 개인 측면의 정치문화 변화에 관심이 있는 반면 클락은 거시적 사회구조적 측면의 '신정치문화'의 발달과 그러한 신정치문화가 야기하는 정치적 함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클락과 잉글하트의 두 입장을 통합함과 동시에 종전의 정치문화 변화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신정치문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정치문화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신정치문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유래없는 지속적 경제성장 및 부의 증가, 고등교육의 보편화, 전문직업

의 증가, 컴퓨터 관련산업 등 하이테크산업의 증가, 탈중심적 조직구조, 새로운 정보체계의 발달 등-를 제시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증가라는 가치관적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다시 정치에 대한 일반시민 및 정치엘리트의 태도, 신념체계, 행동양식, 즉 정치문화³⁾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 문화의 변화는 다시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정당구조의 재편과 재정정책의 효율화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정치문화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화이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근대화과정의 점진적인 변화와는 명백한 균열(cleavage)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서구의 풍요로움은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탈물질주의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종의 증가, 컴퓨터 등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과 그에 따른 조직체의 탈중심적 구조,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체계의 발달 등은 자율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주의⁵⁾의 증가라는 가치관적 변화를 초래하는 급격한 변화인 것이다.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상충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즉, 탈물질주의의 발달은 직접적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에 반하여, 개인주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잉글하트가 서구에서 탈물질주의의 증가와 함께 광범위한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분석한 것과 무라카미가 일본 중간대중의 개인주의와 그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을 지적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Inglehart, 1990; Murakami, 1982). 하지만, 탈물질주의가 자기실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주의가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가치관은 또한 상호친화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치관의 친화적/상충적 상호작용은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인 신정치문화적 특징과 각 사회의 고유한 신정치문화적 특징을 규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신정치문화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탈이념화 및 ‘구 정치단체(이념정당, 노조)’에 대한 회의: 좌-우 또는 보수-혁신

3) 정치문화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알몬드와 버-바(1963), 어수영·한배호(1996)의 정의에 기초하여 정치문화를 “정치 체계 및 그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 태도 및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

4) 탈물질주의는, 전후세대의 가치관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잉글하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전전의 세대가 중요하게 여겼던 안전 보장과 물질적 풍요보다는 언론의 자유, 정치에의 참여 확대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말한다 (잉글하트 1977, 1990).

5) 신정치문화 퍼스펙티브가 제시하는 개인주의는 종래의 집단주의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개인주의에다 개인의 자율에 대한 강조를 첨가한 개념이다.

의 이념적 축은 정치적 이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니며, 종래의 좌-우(보수-혁신)의 기준은 사라지거나 각 사회에 따라 그 의미가 여러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다. 정치적 접근 및 이해에 있어서 이념의 중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이념적 정치단체로 출발했던 정당과 노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게 되며 결국 충성파들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게 되며, 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를 지향하는 신당에의 지지가 증가하게 된다.

2)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 인습적인 정치에서는 경제적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이슈에 대한 입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경제적인 이슈에 보수적 입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이슈에서도 보수적 태도를 보이며, 경제적 이슈에서 진보적 입장이라면, 사회적 이슈에서도 진보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축이 사라지거나 변형되면서,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분리하여 접근하게 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이 경제적 이슈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 반핵, 여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활발히 반응한다.

3) 정치엘리트에 도전적인(Elite-challenging) 정치참여: 일반 시민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새로운 정보체계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투표와 같은 종전의 소극적 정치참여 보다는 광범위한 시위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크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즉, 정치엘리트에 대하여 도전적인 정치참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 엘리트에 대해 도전적인 정치참여는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회의 및 효율적인 행정을 강조하게 된다. 즉,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국가기관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국가 재정의 악화라는 문제를 노출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반시민은 현재의 복지 수준 및 행정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인 방법에 의한 비용절감을 통해 세금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를 경쟁력있는 민영기관이 담당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행정 정책의 영역에서도 옴부즈만, 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통한 직접적인 행정 참여와 영향력을 요구하게 된다. 마이어(Maier, 1988) 등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경계변화는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엘리트의 탈이념화 및 대중지향주의: 파이와 버바(Pye and Verba, 1965)가 옳게 지적했듯이 정치문화는 일반시민의 정치문화와 정치엘리트의 정치문화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반시민의 신정치문화에 대하여 정치엘리트들도 선거에 접근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정당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메스컴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직접 어필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정책 제시에 있어서도 정당의 이념적 정책을 따르기보다는 일반시민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장에서는 아직도 종래의 이념적 정치단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

문에,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대중지향적 신정치문화가 정책적 차원에까지 미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클락과 퍼거슨(1983)은 지방정치의 장으로 눈을 돌려, 신정치문화적 시장의 특징과 그들이 선택한 정책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치의 장에서도,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과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의 경우처럼 종래의 이념적 정당정책을 과감히 바꾸려는 시도가 늘고 있고, 선거에서 이들이 보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신정치문화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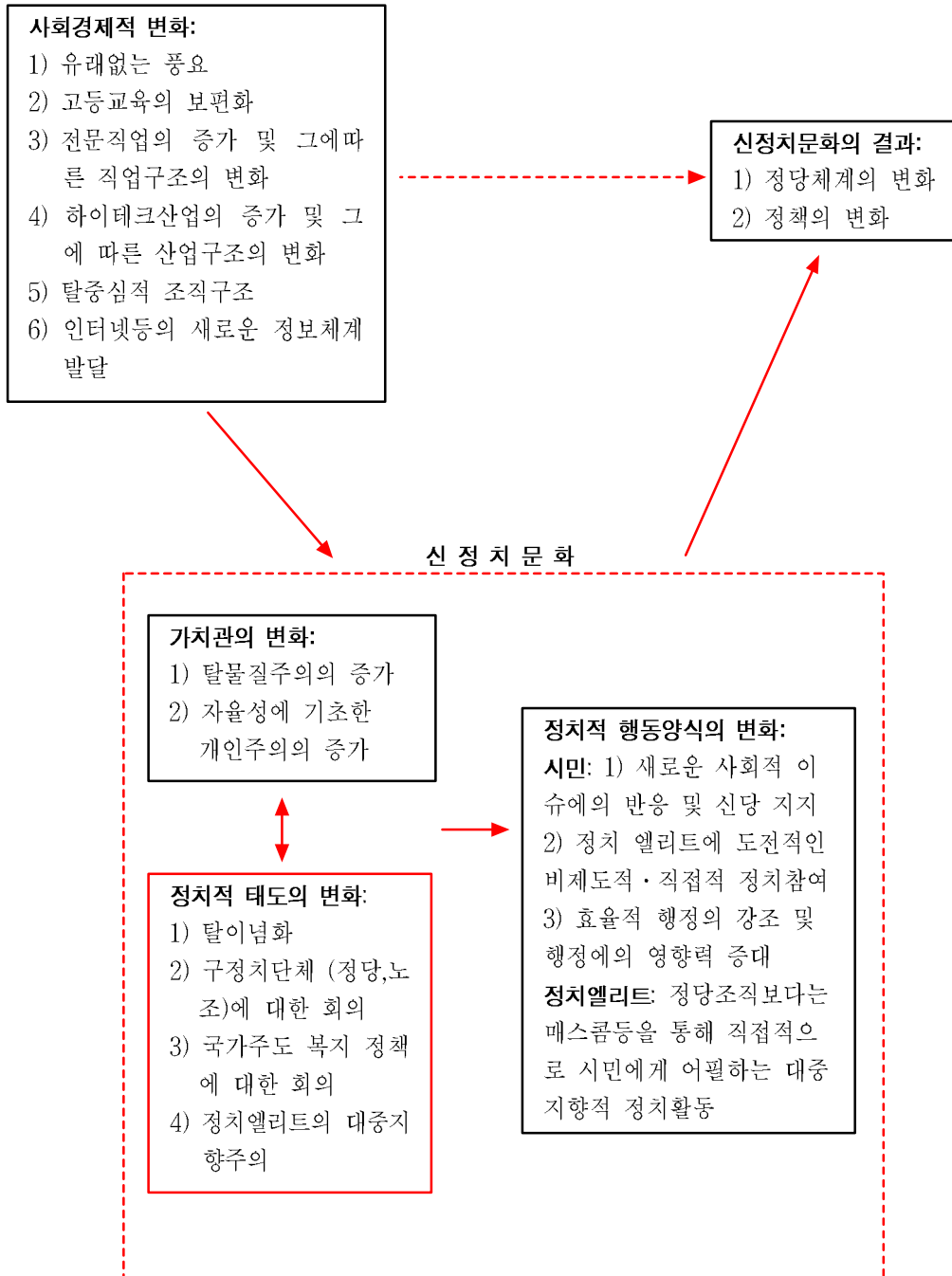
신정치문화 시각은, 이러한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젊은층, 고학력·고소득층,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잉글하트의 결핍원리와 사회화원리에 기초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Inglehart, 1990: 56). 결핍원리란,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에 가장 큰 가치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궁핍의 경우엔 경제적 안정이 우선적인 가치였으나,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표현과 삶의 질에 가치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화원리란, 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가치성향이 그 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층은 전후의 풍요로우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는 큰 변화의 시기에 사회화되었기에 보다 탈물질주의적·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교육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결핍원리에 의해 물질적 가치성향보다는 탈물질적인 가치성향을 보이기 쉽다. 전문가 집단은 탈중심적 직업구조와 하이테크 산업구조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가치성향은 보다 탈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으로 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예측은,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거시적 변수를 응답자의 연령, 수입, 교육, 직업 등의 미시적 변수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신정치문화 퍼스펙티브가 주장하는 인과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신정치문화’ 시각은 이러한 일반시민 및 정치엘리트의 신정치문화가 초래하는 정치적·정책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먼저 정당체계의 재편을 들 수 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문제 등의 새로운 이슈를 지향하는 신당이 선거에서 그 입지를 늘려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각국의 정당체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일본의 정계재편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락과 퍼거슨(Clark and Ferguson, 1983)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 지방정부의 긴축적 효율 재정정책은, 신정치문화가 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은 신정치문화 시각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치관, 정치적 태도, 그리고 정치적 행동양식의 변화, 즉 신정치문화의 발달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다시 정치체계의 변화, 정책의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를 낳았다는 것이 신정치문화 시각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정치문화가 일본 정계재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여러 선거자료, 여론조사 자료, 총

<그림 1> 신정치문화 시각의 다이어그램



계 자료 등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일본에서 신정치문화의 여러 특징들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신정치문화 시각이 예측하고 있는 신정치문화적 집단(젊은세대,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과연 예측한대로 기타의 집단보다 더 신정치문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검증하여 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정치문화적 성향의 집단이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본 정계재편에서의 신정치문화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보겠다.

III. 일본의 신정치문화

일본의 신정치문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치관적 변화와 관련하여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증가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정치적 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보수-혁신의 이념정치의 약화 및 사회당과 같은 이념정당과 노동조합에의 지지도 감소 등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행동양식의 변화로써,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의 반응과 엘리트 도전적 정치참여를 살펴보겠다⁶⁾.

1) 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의 증가

무라카미(Murakami, 1982; 村上, 1984)는 신중간대중정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을 들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일본 총리부의 국민성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1972년에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는 응답자가 58%에 이르고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해야한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던 것에 반하여, 1990년에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응답자가 30%로 늘어나고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는 응답자는 29%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신정치문화 퍼스펙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전부 표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정치문화 퍼스펙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개인주의는 종래의 사회중심-개인중심이라는 축에서의 개인중심적 경향에다가 자율성의 영역을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

탈물질주의 증가에 관련하여서는 먼저 잉글하트의 세계가치관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잉글하트의 조작적 정의⁷⁾에 의한 일본의 탈물질주의자는 1981년의 5.8%에서

6) 신정치문화 시각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의 정치문화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좁히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일반 시민의 정치문화적 변화와 일본 정계재편과의 관계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신정치문화 시각은 정치 엘리트의 정치문화적 변화가 초래하는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일본 지방정치 엘리트의 신정치문화와 그에 따른 지방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Jang 1996, 1997).

7) 잉글하트(Inglehart, 1977)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1) 국가의 질서유지 2)정부의 중요결정에서의 시민의 영향력 증가 3)물가 안정 4) 언론의 자유 수호

1991년 10.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탈물질주의와 관련하여 일본 총리부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졌기에 이제부터는 마음의 풍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는 1976년의 36%에서 1991년의 53%로 증가한 반면, “아직도 물질적 풍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은 동기간 40%에서 32%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두 가치관의 증가를 동시에 시사해주는 조사가 수리통계연구소의 일본 국민성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 조사에서는 삶의 방법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서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3년의 21%에서 1988년의 41%로 증가했던 반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동기간중 10%에서 4%로 감소했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본에서도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탈이념화

먼저 이념정치의 감소에 관하여는, 프랭클린(Franklin, 1992)의 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았다. 프랭클린은 서구 각 국가의 선거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수준, 직업, 도시-농촌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균열(cleavage)과 좌익 정당 투표(left-voting)의 상관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서구의 각 국가에 있어서 이념정치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976년 중의원 선거자료(JABISS)와 1983년 중의원 선거자료(JES)를 이용하여, 프랭클린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표-1>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균열이 사회당 투표에 미치는 설명력은 1976년의 7.6%에서 1983년의 6.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일본의 사회경제적 균열과 좌익 정당 투표

단위: %

년 도	1976	1983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연령, 수입, 노조가입여부, 지역, 도시-농촌, 직업	7.69	6.21

출처: JABISS(1976)와 JES(1983)

등의 4개의 영역을 제시하면서 그 중요한 순서로 2개를 선택하게 하였다. 네 영역 중, 정부 결정에서의 시민의 영향력 증가와 언론의 자유 수호를 가장 중요한 두 영역으로 선택한 사람은 탈물질주의자로, 국가의 질서유지와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두 영역으로 선택한 사람은 물질주의로. 그외의 응답자는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잉글하트는 그 후 12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서 탈물질주의를 파악하고 있다 (Inglehart, 1990).

와타누끼의 연구 또한 위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와타누끼에 의하면, 연령, 교육, 그리고 직업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사회당 투표를 설명하는 비율은 1963년-64년의 16.2%에서 1983년-86년의 11.2%로 감소하고 있다 (Watanuki, 1991: 82)⁸⁾.

위와 같은 분석은 비교연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좌익 정당 투표와의 상관성의 감소 이전에 이미 상관성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민당의 포괄정당화(catch-all party), 완충 투표자(buffer player)의 사회당 투표 등 일본 특유의 정당발전과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민당의 포괄정당화란, 자민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영구 여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의 그룹들의 요구에 응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런 경우 자민당 지지자가 모두 보수이념에 의해 투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완충 투표자란 기본적으로 자민당을 지지하지만, 자민당의 인기가 너무 높아 압도적인 차로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히려 라이벌인 사회당에 투표함으로써 자민당을 경계하려는 투표자를 의미한다¹⁰⁾.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당을 지지한 투표자 모두가 이념에 의한 좌익정당 투표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탈이념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수-혁신의 축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균열과 보수-혁신의 축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표-2>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보수-혁신 이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균열의 설명력은 1972년의 11%에서 1990년의 4.5%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에서도 보수-혁신의 이념정치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사회적 균열과 보수-혁신 이념과의 관계

종 속 변 수	혁신이념			
독 립 변 수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역, 직업, 교육수준)			
년 도	1972년	1976년	1983년	1990년
설명력 (R Square)	.110	.069	.062	.045

출처: 明るい選挙推進協會data

8) 필자의 연구와 와타누끼의 연구에서의 설명력의 차이는 변수의 처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프랭클린의 방법대로 모든 변수를 이분변수로 바꾸어 분석한 반면, 와타누끼는 서열 및 등간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9) 와타누끼(Watanuki, 1991)에 따르면, 자민당의 포괄정당화는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전쟁전의 일본의 대표정당이었던 政友會는 정치가, 국가 관료, 지방 유지, 기업가 등 모든 영역의 이익 단체를 포괄하는 정당이었다는 것이다.

10) 완충 투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카바시마(蒲島, 1988)를 참조할 것.

탈이념화는 이념정당 지지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념을 고수했던 사회당의 지지율은 1953년 23%에서 1993년 7%로 급강하하였던 것이다. 자민당의 경우는 1970년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감소하다가 1970년대 후반의 개혁적인 복지정책을 수용하면서 포괄정당으로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지율은 그 후 다소 증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3년의 자민당의 지지율 급감은 물론 오자와와 하타파의 신생당에게 지지자를 잃은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율과 신생당 지지율을 합한다 하더라도, 31.5% 수준임을 고려하면, 1993년 선거전의 자민당 지지율은 그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감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1953년 19%에서 1988년 3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3년에는 33%로 다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당파의 일부분이 당시 새로 생긴 일본신당 등의 신당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지지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¹¹⁾.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기존의 이념정당에 대한 회의와 지지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기존의 이념적 정치단체에 대한 회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서도 또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율은 1975년의 34.4%에서 1993년의 24.2%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노동성, 1993).

<표-3> 이념정당 지지율의 감소와 무당파의 증가

단위: %

연 도	1953	1958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3
자민당	41	38	43	41	33	34	39	36	25
사회당	23	31	22	22	17	14	13	14	7
무당파	19	20	22	21	33	34	32	38	33

출처: 수리통계연구소(1953-1988). 1993년 자료는 지지통신사 조사(1993년 10월)에 의존했음.

11) 본고의 주장은 일본인의 보수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적 무관심과 무당파층이 증가했다는 소위 “총보수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무당파의 급격한 증가는, 종래의 정치적 무관심층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심은 높으나 정당지지를 버리는 탈정당적 무당파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시각은 다나카(田中 愛治)와 미카미(三上 俊治)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다나카는 일본의 무당파를 전통적 무당파층과 탈정당적 무당파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1983년, 87년, 91년, 93년의 선거에서, 정치적 관심이 높으며 적극적인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는 탈정당적 무당파가 급증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田中, 1997). 미카미는 무당파층을 대상으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2회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신무당파층의 증가가 1993년 선거에서의 무당파층의 주된 특징이었으며, 그들은 특히 시민의 목소리가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는 영역에 관해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三上, 1996).

3)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의 반응

일본 일반 시민의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의 반응도의 변화에 대하여는 그 전에 조사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잉글하트의 세계가치관조사를 바탕으로 일본국민의 신사회운동에의 반응도를 서구의 각국과 비교함으로써, 일본 일반 시민의 신사회운동에의 반응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로써 일본시민의 새로운 사회이슈에 대한 반응도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의 전제는 서구의 각국에서는 이미 신사회운동에의 반응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오펜, 1987; 달튼과 쿠에홀러, 1990).

세계가치관 조사에는 신사회운동의 여러 영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다. 응답자는 강한 지지, 대체로 지지, 대체로 반대, 강한 반대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시민의 97%가 환경, 자연보호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중 59%는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핵운동의 경우도 응답자의 89%가 지지하고 있으며 그 중 60%는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인권운동에 있어서도 92%의 응답자가 지지하고 있으며, 그 중 50%는 강한 지지를 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경우는 조금 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응답자의 74%가 지지하고 있으며 그 중 22%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표-4>는 서구의 각국과 일본의 신사회운동에의 지지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일반시민의 신사회운동 지지도는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동일 수준에 있을만큼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표-4> 신사회운동 지지도: 일본과 서구 각국의 비교

단위: %

국 가	캐나다	독 일	영 국	미 국	일 본
환경운동	94(54)	98(70)	95(46)	94(46)	97(59)
반핵운동	74(32)	77(38)	61(21)	66(25)	89(60)
인권운동	94(58)	93(54)	93(42)	94(51)	92(50)
여성운동	83(37)	72(22)	79(19)	84(32)	74(22)

출처: 잉글하트의 세계가치관조사 (1991).
괄호안은 강한 지지를 보인 응답자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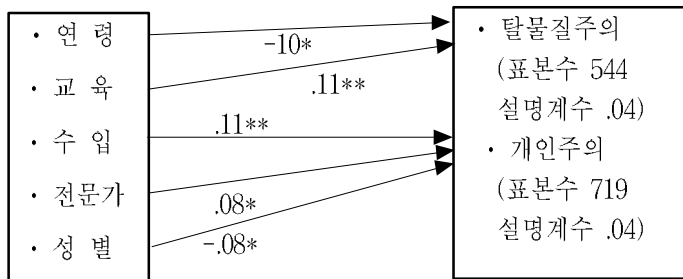
하지만, 일본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지지증가와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신정치문화 시각은, 일반 시민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지지의 증가와 더불어 정치 엘리트에 도전적인 정치참여의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 즉, 일반시민이 종래의 소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게됨에 따라, 시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직접적 정치참여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신사회운동의 지지도는 높은 반면, 실제 시위에 참가하는 비율은 서구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NHK여론 조사(1989)는 시위가담 경험이 있는 시민의 비율이 1988년 1.8%였으며 이것은 1973년 4%에 비해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필자는 집합주의적 문화가 주된 사회에서 개인주의, 탈물질주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측면까지 이르는 경향이 다른 서구국가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 예증한 바 있다 (Jang 1994,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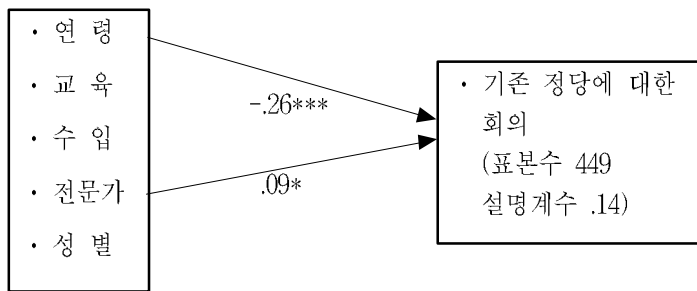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잉글하트의 '세계가치관조사'의 일본인 응답자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신정치문화 시각이 주장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과 신정치문화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보았다. 즉, 일본에서도 젊고, 고학력, 고소득이며, 전문가 집단일수록 신정치문화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이러한 검증이 없다면, 일본에서 신정치문화의 주된 특징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 현상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변화라는 비판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잉글하트의 세계가치관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시민의 인구적 특성과 신정치문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젊고 교육이 높을수록 탈물질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수입이 높고 전문가일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¹²⁾. 또한 기존 정당에의 회의에 관해서 살펴보면, 젊을수록 그리고 전문가 집단일수록, 기존 정당에의 회의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젊은 층, 고학력·고소득층, 전문가 집단이 갖는 신정치문화적 성향에 대한 신정치문화 시각의 예측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신정치문화와 인구학적 특성



12)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변수는, 세계가치관 조사의 개인의 자율성- 국가의 간섭에 대한 축에 대하여 응답자가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 자신의 의견을 위치매기는 문항에 기초하였다. 물론 이것이 신정치문화론이 제시하는 개인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세계가치관조사 (199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 계수
 p: ***<.001< **<.01< *<.05

IV. 일본의 정계재편과 신정치문화

이제 정계재편이 일어났던 1993년의 일본 중의원선거에 있어서 과연 신정치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겠다. 신정치문화의 영향을 다루기 앞서 1993년 정계재편에 대한 엘리트주의적인 설명을 살펴보자. 엘리트주의자들은, 1993년의 정계재편에서 자민당내의 오자와, 하타파벌의 탈당과 그들이 만든 신생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생당 지지자는, 그 전의 자민당에서의 오자와, 하타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단지 당의 이름만을 바꾸어 지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즉, 전체적인 자민당 지지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따라서 정계재편에서 일반 시민의 투표행태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内田·早野·曾根, 1994).

이에 반하여 카바시마(蒲島, 1994)는 1993년의 정계재편의 주된 원인으로 일반시민의 이념정당에 대한 회의 및 불만족, 그에 따른 신당에의 투표를 제시하면서 정계 재편에 대하여 대중주의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카바시마는 불만과 회의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그 설명력이 다소 약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카바시마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기존 정당에의 회의 및 불만족의 원인으로, 일본국민의 신정치문화적 성향의 발달을 제시한다. 따라서, 논문의 앞부분에서 제시되었듯이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높은 젊은 세대, 고학력·고소득층,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1993년 중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어떠한 정치적 태도와 행위를 보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계 재편에서의 대중주의적 설명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표-5>는 선거가 있기 한해전인 1992년의 일본 시민의 정당에 대한 불만도를 조사한 타니후지(谷藤, 1993)의 연구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신정치

문화적 성향의 집단은 93년 중의원선거 전,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기타의 집단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율이 27%인 것에 반해, 20대와 30대의 불만율은 평균 39%에 달한다. 교육 정도와 불만율을 살펴보더라도, 중학교 졸업자의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율은 31%인데 반해, 대졸자의 불만율은 43%에 미치고 있다. 직업에 따른 불만율의 차이를 살펴보더라도, 농어업종사자의 27%가 기존 정당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45%가 기존 정당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의 기존의 정당에 대한 불신과 회의의 정도는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5> 기존 정당에의 불만과 신정치문화적 인구분포

단위: %

연령별 불만율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38	40	36	33	27
교육수준과 불만율	중 졸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31	34	35	43	
직업별 불만율	농어업	근로직	사무직	전문직	
	26	33	38	45	

출처: 타니후지(谷藤, 1993)

이제 기존정당에 대한 불만과 회의가 높은 신정치문화적 성향의 집단이 1993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투표행위를 보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 정계재편에서의 신정치문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겠다. <표-6>은 1993년 중의원 선거 후의 각 정당 지지자의 인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6>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각 정당지지자의 인구적 특성

정 당	자민당	사회당	신생당	사끼가끼	일본신당	자민/사회 평균	신당 평균
평균연령	52세	51세	47세	43세	46세	51.5세	41.3세
평균교육	2.1	2.2	2.4	2.6	2.7	2.15	2.57
전문/사무 직종	17%	28%	30%	26%	27%	22.5%	27.7%

출처: 미야끼(三宅, 1994)

평균교육은 중졸=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로 산출했음.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신당 지지자는 자민당·사회당의 기존 정당 지지자보다 평균 연령이 10세 이상 낮으며, 평균 교육수준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볼 때에도, 자민당·사회당의 기존 정당 지지자의 22.5%가 전문·사무직 종사자인데 반해, 신당 지지자는 그보다 5% 이상 많은 27.7%가 전문·사무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은 정계재편의 엘리트주의적 해석에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만약 신당 지지자들이 자민당에서 신당으로 이적한 의원들을 지지하는 기존의 자민당 지지자에 불과하다면, 정치경험이 거의 없는 35명의 일본신당 초선의원을 지지한 유권자는 어떤 성격의 집단인가? 이 질문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사회당 지지자 중 사회당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에 대해 회의적인 집단이 일본신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신당 지지자는 평균적인 사회당 지지자가 아니라, 사회당 지지자 중에서도 젊고 고학력인 집단, 즉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높은 집단인 것이다. 둘째, 자민당에서 탈당한 오자와, 하타파벌이 조직한 신생당을 지지하는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또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만약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전에 자민당에 있을 때 지지했으므로 신생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도 여전히 지지한다고 한다면 자민당 지지자와 신생당 지지자와의 인구학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표-6>이 보여주고 있듯이, 신생당 지지자들은 자민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젊고 고학력이며 전문직종 종사자이다. 즉, 최대한 양보하여, 신생당 지지자는 그전의 자민당 지지자가 옮겨온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옮겨온 사람들은 평균적인 자민당 지지자가 아니라, 자민당 지지자들 중 보다 젊고 고학력이며 보다 전문직 종사자인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높은 집단인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1993년의 중의원 선거와 그에 따른 정계재편과정에서 신정치문화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신당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1993년 선거가 자민당 분열과 신당 창당 등 정치엘리트 간의 권력갈등과정에서 성립한 정당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구도의 성공여부와 그에 따른 정계재편은 정치엘리트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먼저 '신정치문화' 퍼스펙티브를 소개한 후, 일본에서도 신정치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신정치문화의 발달이 93년 중의원선거가 발단이 된 일본 정계재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것은 물론 신정치문화의 발달이 일본 정계재편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말은 아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등이 틀림없이 정계재편의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신정치문화의 발달이 없었다면, 똑같은 정치적 상황과 정치엘리트의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1993년의 정계재편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기존의 문화적 접근과 다르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문화를 결정론적으로 또 불변한 것으로 보는 인류학적 접근과는 달리, 정치문화 변화의 역동성(다이나믹)과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치문화 연구가 정치체제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문화를 정의함에 있어 추상적이고 따라서 체계적인 실증적 연구가 어려웠던 종래의 정치문화적 접근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중간 범위의 개념으로 정치문화를 정의함으로써 실증적 검증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치문화라는 경험적 접근이 어려운 영역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어 자료의 부족, 개념적 변수와 실증적 자료와의 일관성 부족 등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정계는 1993년 이후 앞을 알 수 없는 변화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과 사회당의 연정, 신진당의 창당과 분당, 민주당, 태양당의 창당 등은 일본 정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혹자는, 1996년 일본 자민당의 실질적 재집권을 보면서, 일본이 다시 보수의 길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계재편의 주역이었던 신당들이 자민당과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일본의 유권자가 다시 자민당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의 정치·행정 개혁을 본다면 자민당이 그전의 보수진영을 전적으로 대표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개혁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민당의 포괄정당적 특성이 다시 한 번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자민당 정권의 중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하시모토(橋本)의 행정개혁이 1993년의 호소카와(細川) 연립정권의 개혁안에 기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하시모토 행정개혁의 주된 특징인 ‘규제완화’, ‘재정정책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적자의 축소’ 그리고 ‘지방분권’은 ‘자율’과 ‘효율성’이라는 신정치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혼란의 와중에서도 도도히 흐르고 있는 신정치문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참 고 문 헌

- 김장권. 1996. 「일본정치개혁의 구조와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1호.
 김재영 외. 1990.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어수영·한배호. 1996.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 한배호·어수영. 1987.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 蒲島郁村. 1988. 『政治参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94. 「新黨の登場と自民黨一黨優位体制の破壊」, 『リバイアサン』 15: 7-31.
- 小林良彰. 1991. 『現代日本の選挙』.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村上泰亮. 1984. 『新中間大衆の時代』. 東京: 中央公論.
- 村松岐夫. 1988. 『地方自治』.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三上俊治. 1996. 「政界再編期における政治意識とメディア行動」,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會. 1996年 秋季學術大會發表論文. 1996年10月26日.
- 三宅一郎. 1989. 『投票行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94. 「新黨の出現と支持者集團の編成」, 『地方自治』 9: 2-26.
- _____. 1995. 『日本の政治と選挙』.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日本労働省. 1993. 『1993年度労働組合基礎調査結果』.
- 数理統計研究所. 1953-1988. 『國民性調査』.
- 田中愛治. 1997. 「無党派層の意識構造と投票行動: 新たな理論モデルと1996年總選挙における實證分析」, 日本選挙學會 發表論文. 日本選挙學會. 1997年5月17-18日.
- 谷藤悦史. 1993. 「日本における政治不信の構造」, 『選挙研究シリーズ』 12: 21-47.
- 辻清明. 1969. 『日本官僚制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内田建三·早野透·曾根泰教. 1994. 『大政變』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Aoki, Masahiko. 1988. *Information, Incentives, and Bargaining in the Japanese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pter, David E. and Nagayo Sawa. 1984. *Against the State: Politics and Social Protest in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rk, Terry N. and L. C. Ferguson. 1983. *City Money: Political Process, Fiscal Strain, and Retrench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lark, Terry N. and Ronald Inglehart. 1990. "The New Political Culture: Changing Dynamics of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nd Other Policie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tlanta, 1989, a revised paper.
- Dalton, Russell and Manfred Kuechler, eds. *Challenging the Political Order: New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 in Western Democrac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lin, Mark et al. eds. 1992. *Electoral Change: Responses to Evolving Social and Attitudinal Structure in Western Count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ng, Wonho. 1994. "The New Political Culture and Individualism in Japan." paper presented to XXIV World Congress of Sociology. 18-24 July. Bielefeld, Germany.
- _____. 1996. *The New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Japa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1997. "The New Political Culture, Changing Policy Preferences of Mayors, and Changes of Urban Policies in Japa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7 (2). December 1997 게재 예정.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ier, Charles S. 1987.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Essays on the evolving balanc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public and private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akami, Yasusuke. 1982. "The Age of New Middle Mass Politics: The case of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Studies* 8: 29-72.
- Muramatsu, Michio and Ellis S. Krauss. 1987. "The conservative policy line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ed pluralism." in Y. Yasuba and K. Yamamura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The Domestic Transform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Offe, Claus. 1985. "New Social Movements: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Social Research*. 52: 817-68.
- _____. 1987.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movements since the sixties." in C. S. Maier ed.,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arr, Susan J. 1990. *Losing Face: Status Politics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empel T. J. and K. Tsunekawa. 1979. "Corporatism without Labor? the Japanese Anomaly." in Phillippe Schmitter and Gerhard Lehmruth ed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New York, Sage.
- Pye, Lucian W. and Sidney Verba, eds., 1965.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mseyer J. Mark and Francis McCall Rosenbluth. 1993. *Japan's Political Marketpla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eed, Steven R. 1988. "The People Spoke: The Influence of Election on

- Japanese Politics, 1945-1955."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4(2): 309-339.
- Samuels, Richard J. 1987. *The Business of the Japanese State: Energy Markets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ilberman, Bernard L. 1974. "The Bureaucratic Role in Japan: The Problem of Authority and Legitimacy." in Najita T. and V. Koschmann eds., *Conflict in Modern Japa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pham, Frank K. 1987. *Law and Social Change in Political Jap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tanuki, Joji. 1991. "Social Structure and Voting Behavior." in Richardson et al. eds. *The Japanese Vot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The New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Japan

Wonho Jang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dynamics of the current political change in Japa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had been considered a permanent government party, lost its majority holding in 1993 and became the opposition party for the first time since 1955. More strikingly, to regain the majority, the LDP made a coalition with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DP) which had been the first opposition party representing the opposite ideological camp for half a century. While most of the studies explaining these changes are based on the elitist approach emphasizing the role of the politicians defecting from the LDP, this paper takes a populist posi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change of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Japanese public.

This paper bases its theoretical position on the new political culture (NPC)

perspective which focuses on the changing political attitudes and actions of the publics in many advanced societies. The causes of the changes in political attitudes and actions comes from the social structural changes which include the emergence of unprecedented affluence, change of family structure toward a "slimmer pattern", and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with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high-tech and information industries. These social structural changes lead to significant value changes which include the increase of post-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values, there emerged a change in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public which is mainly characterized by (1) less support for ideology-based political organizations; (2) declining significance of social cleavage, especially class, in approaching political issues, and (3) increasing broad civil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other features. The resultant NPC in turn influences politics in two specific ways; party structure previously based on conventional ideological politics are transformed into parties more attentive to the changing political culture. Secondly, the NPC encourages more efficiency-oriented policies.

Based on the NPC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political culture of the Japanese. The "Hoshu-Kakushin (conservative-radical)" ideological cleavage, formerly the most important cleavage in approaching politics in Japan, has significantly declined in importance and consequently support for conventional ideological political parties, the LDP and the SDP, has declined significantly. Using World Value Survey data, this thesis undertakes a path analysis from social structural changes to the change of political culture, proving the causal relations that the NPC perspective expect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NPC on the political changes in Japan since 1993. It shows that the NPC type demographics were more skeptical towards the conven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parties in 1992 one year before the election than more traditional groups. As a consequence, the NPC type demographics were more supportive of the candidates from the new parties in the 1993 election.

Throughout this paper, the importance of the change in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Japanese public is emphasized as a cause of political change in Japan. By proposing a populist approach in explaining the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ere the elitist approach has been a dominant view,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 more balanced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In addition, this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the populist approach to Japanese

politics, contending that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public on political change will continue to increase.